



일본, '전동 킥보드' 규제 동향

강윤지 연구원

요약

일본은 2022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새롭게 분류하며 운전면허 취득 및 헬멧 착용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규제 완화로 인한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고, 보험회사는 전동 킥보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한편,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차량 범주로 구분되면서 금융청은 전동 킥보드에 적합한 세금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국토교통성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증서의 디지털화를 준비하고 있음

- 2022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전동 킥보드가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운전면허가 불필요하게 되고 헬멧 착용 의무가 선택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됨¹⁾
 - 일본에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량 구분에 따라 '원동기 부착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자배책') 가입이 필수적이었으나 2022년 4월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 새롭게 분류됨
 -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번호판 장착, 운전면허 소지 및 도로 통행, 헬멧 착용 의무가 있었음²⁾
 -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따라 자전거 관련 도로 교통표지판에 전동 킥보드가 함께 표시되는 것으로 변경됨
 - 개정 후 16세 이상의 연령 제한이 있으며, 최고 속도 20km/h로 제한됨

〈표 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동 킥보드 규제 변경 사항

구분	현행 제도	개정 후(2023년 7월 이후)
면허	필수	불필요
헬멧	필수	선택(노력 의무)
자배책 보험	필수	필수
번호판	필수	필수
속도 제한	시속 30km	시속 20km
주행 장소	차도	차도, 자전거 레인, 도로 측대
연령 제한	운전면허 기준	16세 이상

자료: 経済産業省(2022. 11. 25)

-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법 개정으로 인해 보도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성 문제가 지적됨

1) 経済産業省(2022. 11. 25), “電動キックボード”

2) 警視庁(2022. 9. 15), “電動キックボードについて”

- 2022년 7월 1,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닷컴의 설문조사 결과³⁾에 의하면, 응답자의 37.5%는 '전동 킥보드 주행 시 음주운전이 금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며, 이용자의 60%가 '위험을 느낀 순간이 있다'고 응답함
 - 설문 참여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71.4%)'인 것으로 나타남
- 일본 경시청이 2022년 10월 공개한 자료⁴⁾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4건(부상자 5명), 2021년 29건(부상자 30명), 2022년 6월까지 16건(부상자 16명)으로 나타났음
 - 2022년 9월 25일에는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이용자의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전동 킥보드 헬멧 의무 완화 위험성이 지적됨⁵⁾

○ 규제 완화로 인한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고, 보험회사는 전동 킥보드 전용 서비스를 제공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전동 킥보드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2년 10월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을 개정함⁶⁾
 -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인해 후사경, 소음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나, 안전 기준 개정을 통해 최고 속도 표시등, 방향지시기, 속도제한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새롭게 추가됨
-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과 내비타임 재팬은 2023년 2월 일본 최초로 전동 킥보드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 공동 개발을 발표함⁷⁾
 - 전동 킥보드 전용 내비게이션은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안내, 사고 다발지역에서 주행 전, 주행 중에 경고음 발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탑재함

○ 한편,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차량 범주로 구분되면서 금융청은 전동 킥보드에 적합한 세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국토교통성은 전동 킥보드 자배책 증서에 대한 디지털화를 준비하고 있음⁸⁾

- 전동 킥보드에 대해 매년 2,000엔의 경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동 킥보드의 새로운 구분에 적합한 과세 표준 변경 필요성이 제기됨⁹⁾
- 국토교통성은 전동 킥보드 등으로 변화된 새로운 도로 환경을 고려한 자배책 증서 디지털화를 준비하고 있음
 - 전동 킥보드 차제 구조상 자배책에 대한 실물 증서 휴대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증서를 소지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¹⁰⁾

3) 弁護士ドットコム(2022. 7. 28), “電動キックボードの利用状況について調査~利用者の25%が「飲酒運転禁止と知らなかった」~”

4) 警視庁(2022. 10. 18), “事務局説明資料”

5) 朝日新聞デジタル(2022. 9. 27), “電動キックボード死亡事故・「ノーヘルOK」の背景に事業者の要望”

6) 国土交通省(2022. 12. 23), “道路運送車両の保安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及び 道路運送車両の保安基準の細目を定める告示等の一部を改正する告示について”

7) 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損保(2023. 2. 21), “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損保とナビタイムジャパン 電動キックボードの安全・安心な利用に向けた連携を開始~国内初となる電動キックボード専用ナビゲーションシステムを開発~”

8) 国土交通省(2023. 1), “令和5年度自動車局関係予算概要”

9) 総務省(2023. 1. 19), “令和5年度地方税制改正・地方税務行政の運営に当たっての 留意事項等について”

10) 日刊自動車新聞(2023. 1. 24), “国交省、電動キックボードなど自賠証の電子化対応で法改正・スマホで確認可能に・6/1施行予定”